건강이슈 2

미 FDA, 멘톨 담배 및 가향 담배제품 판매금지 추진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과 **나경인, 이은지, 황호평**

2021년 4월 6일 캐나다 워털루대 연구팀의 발표(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ITC 공동연구결과)에 의하면 2016~2017년 캐나다 7개 지역에 멘톨제품을 금지한 결과, 금연시도 및 금연성공률은 증가하였고, 과거흡연자의 재흡연율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1]. 또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은 미 담배규제법의 요구에 따라 독립적인 자문위원회가 과학적 검토를 수행하여, 멘톨 담배 및 가향 담배제품 판매금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여, 향후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담배정책에 참고하고자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미FDA)은 2021년 4월 29일에 흡연은 미국에서 예방 가능한 주요한 사망원인이며, 담배제품 사용에 의한 각종 질병이환 및 사망자를 크게 줄일 목적으로 '멘톨 담배나 향이 가미된 담배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안'을 내년까지 확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FDA의 이번 방침은 2013년의 '담배 내 멘톨첨가를 금지하는 규칙 제정'을 요청한 시민 청원과 관련된 것으로, 청원에 대한 답변 최종 시일인 4월 29일에 맞춰 발표되었다.

미국은 2009년 담배규제법(Tobacco Control Act, TCA)에 담배의 향미 특성화 금지항목을 정하였으나, 당시 멘톨이 포함되지 않아 이 향이 첨가된 담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흡연자들이 이용하면서, '향미 특성화 금지 조치' 등 공중 보건 목표가 약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향을 첨가한 대량 생산 시가와 시가릴로는 담배와 매우 흡사하고 동일한 공중 보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연소되는 담배 제품으로, 청소년 등에서 인기가 있다. 2020년에 지난 30일간 흡연율이 히스패닉계가 아닌 흑인 고등학교 학생은 백인 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준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시가를 사용하는 12~17세 미국 청소년의 약 74%가 좋아하는 맛이 나기 때문에 시가를 피운다고 하였으며, 시가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 중 시가릴로 사용자의 68%, 필터링 된 시가 사용자의 56%가 처음 흡연을 시작한 제품을 향이 나는 제품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매일 흡연과 관련하여, 일반담배보다 시가를 시도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았다.

*담배(궐련) : 종이로 말은 형태로 담배성분이 1 g 함유되어 있고 흡연시간이 10분 미만임

시가 : 담뱃잎을 말은 형태로, 담배성분이 5~20 g 함유되어 있으며 2시간까지 흡연 가능, 고급제품 중에는 시가 1개당 담배 한 갑 량인 경우도 있음

시가릴로 : 담배성분이 3 g 함유되어 있음(자료원 : 미국암센터)

미FDA는 미 담배규제법의 요구에 따라 독립적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멘톨과 비멘톨 담배제품 차이와 멘톨이 인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제안된 규칙 제정의 사전 통지를 발행하고, 독립적인 평가를 위한 광범위한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이 사안을 입증했다.

미국은 현재 약 1,860만 명에 달하는 멘톨 담배제품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흡연자들 사이에서 멘톨 담배 사용은 균일한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 모든 흑인 흡연자 중 약 85%, 백인 흡연자 중 약 30%가 멘톨 담배를 흡연한다. 또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멘톨 담배 사용을 관찰한 결과, 비 히스패닉 백인 청소년은 감소되었지만 비 히스패닉 흑인 또는 히스패닉 청소년에서는 감소되지 않았다.

재닛 우드콕(Janet Woodcock) 미FDA 국장 권한대행은 “멘톨 담배나 향이 가미된 담배제품 금지는 이런 제품들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청소년의 흡연시작방지, 현재흡연자의 금연가능성 확대, 주 이용자인 유색인종, 저소득층, 성 소수자 등에서의 건강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게 FDA의 목표”라고 하였다.

멘톨 담배나 향이 가미된 담배 제품은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의 효력을 강화하여 중독성이 더 높고 특유의 향 때문에 담배에 대한 거부감이 낮다. 미FDA는 한 연구를 인용하여 미국 내 멘톨 담배 금지조치를 실시하면, 첫 13~17개월 동안 230,000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포함한 923,000명의 흡연자가 금연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약 237,000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포함한 약 633,000명이 동 조치를 통해 사망을 예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미치 젤러(Mitch Zeller) 미FDA 담배제품센터 책임자는 “지난 55년 동안 금연정책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너무 오랫동안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포함한 특정 인구는 균등한 정책혜택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이번 FDA의 조치는 담배와 시가제품 사용시작 및 흡연 방지, 건강불균형 격차를 줄이는 등 흡연폐해원인을 해결하여 건강형평성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미FDA의 판매·유통금지는 담배제조업체, 유통업체, 도매업체, 수입업체 및 소매업체에만 적용되며, 멘톨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개인 소유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금지안은 미 연방 관보에 게재를 통해 미국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2].

이번 조치에 대한 미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장관 하비어 베세라(Xavier Becerra)는 성명문을 통해, “FDA가 발표한 금지안은 모든 미국인의 건강을 개선하고 가장 소외된 지역 사회의 건강 격차를 해결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을 반영합니다. 담배와 관련된 사망과 질병은 과거 미국역사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규제는 미래세대가 흡연자가 되는 것을 막고 오래 지속되는 건강불균형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흡연자가 금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에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라고 하였다[3].

참고문헌

1. Chung-Hall J,et al. Evaluation the impact of menthol cigarette bans on cessation and smoking behaviours in Canada:longitudinal findings from the Canadian arm of the 2016-2018 ITC Four Country Smoking and Vaping Surveys, BMJ 2021Tob Control ;0:1-8. doi:10.1136/tobaccocontrol-2020-056259
2.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commits-evidence-based-actions-aimed- saving-lives-and-preventing-future-generations-smokers
3. https://www.hhs.gov/about/news/2021/04/29/statement-hhs-secretary-xavier-becerra-fda-tobacco-actions- menthol-cigarettes-flavored-cigars.html